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종이 카드로 꿈꾼 인터넷, 문다네움(Mundaneum)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896/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검색창에 몇 글자를 넣고 순식간에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전자 통신망도 없던 100여 년 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곳에 모아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꿈을 실제로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두 법률가는 책과 신문, 보고서에 흩어진 정보를 손바닥만 한 카드에 한 장씩 옮겨 적고, 정해진 번호에 따라 거대한 서랍장에 꽂았습니다. 카드는 수십 년 만에 1,500만 장이 넘게 쌓였고, 사람들은 편지로 질문을 보내 답을 받아 갔습니다. 이 꿈의 보금자리가 바로 ‘문다네움(Mundaneum)’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문다네움을 세운 사람들과 그들이 품은 생각부터, 카드와 분류 번호로 짜인 지식 창고의 구조, 우편으로 운영된 질문 답변 서비스, 그리고 쇠퇴와 재발견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카드로 세상의 지식을 엮으려 한 꿈 두 법률가가 꿈꾼 지식의 도시 문다네움을 만든 폴 오틀레(Paul Otlet)와 앙리 라퐁텐(Henri La Fontaine)은 벨기에 브뤼셀의 법률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1891년에 만나 서지학과 국제 협력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습니다. (1) 책 대신 카드에 담자